

명곡 최석정(明谷 崔錫鼎)의 격물관(格物觀)과 우주관(宇宙觀)

조선 후기 성리학에 대한 지적 도전과 그 대응

Myunggok Choi Seokjeong's View on the Investigation of Things and Universe:

Intellectual Challenge to Neo-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and Its Response

이원준*

국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소론계 유학자 명곡 최석정(明谷 崔錫鼎, 1646~1715)의 격물관(格物觀)과 우주관(宇宙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 새로운 학문사조의 대두로 인해 조선 후기 성리학계가 당면한 지적 도전과 이에 대한 성리학 지식인의 대응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최석정은 천문, 수학, 서학 등 일견 '성리학에 대한 도전적 사조'로 간주되는 학술활동에 주력했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리학의 실천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실제로 최석정의 학문방법론은 다른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즉물궁리(卽物窮理)'에 바탕을 두었으며, 이에 '격물(格物)'과 '궁리(窮理)'의 개념을 적용하여 세상 만물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석정은 기존 학계의 주된 관점과 다르게 '격물'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사물로 하여금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인간의 공부'의 측면으로만 이해되던 전통적 격물공부에 공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호응'의 측면을 추가하여 양자의 조응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최석정의 '격물'에 대한 사색은 기존의 전통적 우주론의 한계를 체감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는 '우주'를 공간적 관념인 '우'와 시간적 관념인 '주'를 나누는 과정에서 물질세계와 관련된 담론인 '우설'을 보완하여 기존 세계관 바깥의 사물을 소개하는 서학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최석정의 격물관과 우주관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되는 '격물' 공부를 기존의 화이관적 세계관 바깥의 '사물'을 성리학 적 시야에서 이해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핵심어 최석정, 소론, 격물, 우주, 성리학, 한국유학, 서학동점

- 차례**
- 들어가며
 - 최석정의 '격물' 이해: '사물로 하여금 이르게 하는 공부'
 - 최석정 '사지격' 독법의 함의: '인간의 공부'에서 '사물의 호응'으로
 - '궁격' 대상으로서의 '우주(宇宙)' 이해: 우(宇)·주(宙)의 분리와 '우설(宇說)' 보완
 - 나가며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소론(少論)의 영수였던 명곡 최석정(明谷 崔錫鼎, 1646~1715)의 격물관(格物觀)과 우주관(宇宙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 새로운 학문사조의 대두로 인해 조선 후기 성리학계가 당면한 지적 도전과 이에 대한 성리학 지식인의 대응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 후기 유학사상계는 노론(老論) 계열의 유학자들이 성리학 이해의 심화에 집중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과 더불어, 기타 일군의 학자들이 '실학'으로 지칭되는 실천

적 학문을 지향하거나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 대안적 유학 사조를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 가운데 ‘성리학에 대한 도전적 유학 사조’를 주도한 학자군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학문 원류로 지적되는 ‘근기남인(近畿南人)’ 계열,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과 담헌 홍대용(澗軒 洪大容, 1731~1783) 등 노론-낙론계로부터 비롯된 ‘북학파(北學派)’ 계열, 그리고 독자적 경학을 추구한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 1629~1703)이나 한국 양명학을 대표하는 하곡 정제두(霞谷 鄭齊斗, 1649~1736) 등이 소속된 ‘소론(少論)’ 계열이 그것이다.¹ 최석정의 경우 남계 박세채(南溪 朴世采, 1631~1695)와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 1629~1711)을 스승으로 둔 데에서도 확인되듯, 상술한 세 계열 가운데 ‘소론’ 계열에 속한다.

‘성리학에 대한 도전적 사조’가 등장하는 사상적 동인(動因)에 대해서는 만주족 국가인 청나라의 중원 장악에 따른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체감, 성리학 일존주의에 대한 회의 및 자성,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서구의 학문인 서학(西學)의 유입 등이 거론되는데, 최석정의 학문 활동은 이러한 동인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당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선진적인 수학 지식을 담았다고 알려진 수학서 『구수략(九數略)』을 포함하여,² 훈민정음을 역리(易理)의 구조로 풀이한 음운학 저서 『경세훈민정음(經世訓民正音)』과 기존 성리학계의 『예기(禮記)』 이해와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한 예범서 『예기유편(禮記類編)』 등을 저술함

으로써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구수략』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천학초함(天學初函)』을 참조하거나,³ 예수회 선교사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접하면서 성리학적 천문지식에 의문을 가지는 등 서학에도 포용적 자세를 지녔다.⁴ 상술한 학문 활동으로 인해 최석정은 당대의 주류 흐름이었던 존주대의(尊周大義) 같은 명분론이나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보다는 성리학의 실천성에 주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천문, 수학, 서학 등 다양한 학문 조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조선의 학문지형도를 다양하고 탄력적일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평가받는다.⁵ 이러한 평가에서도 확인되듯, 최석정은 ‘성리학에 대한 도전적 사조’로 간주되는 학술 활동에 주력했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리학의 실천성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는 역으로 그가 다양한 학문을 섭렵할 때에도 성리학을 자기 학문의 기초로 삼았음을 보여준다.⁶ 다만, 현대 학계에서 최석정 사상의 면모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아직 ‘성리학자 최석정’에 주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⁷

3 최석정이 『구수략』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서학서를 참조한 양상에 대해서는 전병훈, 『조선 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59~63쪽 참조.

4 구만옥은 당초 주희의 ‘좌선설(左旋說)’을 근거로 ‘우선설(右旋說)’을 비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던 조선조 천체운동론 관련 논의는 이후 서양 천문학의 행성운동론이 소개됨으로써 전한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최석정 역시 서양 역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학설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보았다(구만옥, 『朝鮮後期 朱子學的 宇宙論의 變動』,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114~122쪽).

5 신병주, 「17세기 중·후반 소론 학자의 사상: 윤증·최석정을 중심으로」, 『명국 최석정의 정치사상과 학문세계』, 한산문화연구원, 2021, 189~190쪽.

6 실제로 최석정의 산학과 음운학은 성리학적 자연철학의 기초를 이루는 소옹(邵雍, 1011~1077)의 상수역학(象數易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구수략』 역시 서학 서적을 참조하여 보완하기는 했지만 그 이론적 바탕은 어디까지나 역리(易理)에 두고 있다(정해남, 「소강절의 수론 사상과 <구수략>에 미친 영향」, 『한국수학사학회지』 23(4), 2010, 14쪽; 조희영, 「『구수략(九數略)』, 송대 도서상수학으로 짜인 조선수학서: 인문학적 지평에서」, 『정신문화연구』 40(1), 2016, 106~109쪽).

7 최석정의 사유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구수략』의 내용과 가치에 주목한 산학(算學) 분야, 『경세훈민정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어학(語學) 분야, 『예기유편』의 독자성에 주목한 예학(禮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최석정을 주제로 한 연구 경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명석, 「명국 최석정 연구의 현황과 과제」, 『명국 최석정 문학세계에 대한 접근의 일단』,

1 ‘성리학에 대한 도전적 유학사조’에 대해 구만옥은 실증에 바탕을 둔 실리의 탐구로 이어진 것으로 실사학의 일환으로 자연학에 주목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학술 확동을 전개한 학자군을 근기남인계, 노론-낙론계(북학파), 소론계로 나누어 이들 각각의 우주론 변화를 분석하였다(구만옥, 『朝鮮後期 朱子學的 宇宙論의 變動』,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19~305쪽).

2 국내 수학계의 노력으로 『구수략』에 수록된 ‘직교라틴방진’이 조합수학(Combinatorial Mathematics)의 효시인 레온하르트 오일러(Leonhard Euler, 1707~1783)의 그것보다 60여 년 앞섰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으며, 이에 최석정은 201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송홍연, 「오일러를 앞선 최석정의 오일러방진」, 『한국통신회지』 30(10), 2013, 101~108쪽).

최석정의 사상적 기반이 성리학이라는 점은 그의 논쟁적 작품인 『예기유편』에서도 확인된다. 최석정은 당초 『예기』 아래에 포함되어 있다가 성리학의 사서(四書) 체계로 인해 독립된 저작으로 취급되던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다시 『예기』의 「대학」장과 「중용」장으로 삼입하였고, 이로 인해 1709년부터 노론측으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⁸ 그러나 『예기유편』 「대학」, 「중용」장이 주희(朱熹, 1130~1200)의 『대학장구(大學章句)』와 『중용장구(中庸章句)』 체계를 해체하지 않은 점에서 최석정이 성리학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⁹ 대표적인 예가 주희의 격물치지(格物致知) 「보망장(補亡章)」을 『예기유편』에 그대로 실었다는 점이다. 이는 성리학을 기초로 사유한 다른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공부방법론 역시 주희가 제시한 ‘격물’ 이해방식, 즉 “외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한다”¹⁰는 ‘즉물궁리(卽物窮理)’의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최석정은 ‘격물(格物)’과 ‘궁리(窮理)’의 방법론을 통해 세상 만물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1704년에 「우주도(宇宙圖)」를 제작한 바 있는데,¹¹ 이 과정에서 「우주도」가 자신의 ‘궁격(窮格)’에 보

탤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최석정은 학술용어로서의 ‘격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였는데, 이는 1690년대 초반에 소론계 학인들 사이에서 진행된 ‘격물’ 관련 논변에서 확인된다.¹² 최석정은 훈의(訓義)의 측면에서 ‘격물’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사물로 하여금 격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물을 격케하다”로 현토(懸吐)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론계 격물 논변을 주도한 구천 이세필(龜川李世弼, 1642~1718)과 양와 이세구(養窩李世龜, 1646~1700) 등 동료 학자와 논변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격물’ 훈의에 대한 최석정의 관심은 일견 ‘성리학에 대한 도전적 사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그의 학술활동이 오히려 성리학적 학문방법론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격물’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성리학적 이해 방식을 따르면서도 이전 학계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 최석정의 학문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석정의 ‘격물’ 이해

： ‘사물로 하여금 이르게 하는 공부’

최석정의 ‘격물’ 이해는 주희가 제시한 ‘즉물궁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일례로 그는 정제두가 양명학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해석은 반드시 주희의 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³ 또한 정제두가 최석정에게 보낸 글에는 최석정이 “공문(孔門)에 ‘치양지(致良知)’ 세 글자는 없다.”라 비판하자 이에 대해 정제두가 “그러면 ‘즉물궁리’란 말은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인가?”라며 논박하는 대목이 나온다.¹⁴ 정제두의 반응은 최

학자원, 2020, 43~46쪽 참조.

8 『예기유편』은 1690년대에 저술된 이후 당시 임금인 숙종의 재가를 받아 1700년에 간행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709년 노론측에서 『대학』과 『중용』에 대한 취급 문제를 포함하여 『예기』와 별개의 저작인 『효경(孝經)』을 『예기』의 하위 절목으로 삼입한 점을 근거로 『예기유편』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듬해 『예기유편』은 분서(焚書)와 훼손(毀板)을 당하였다. 『예기유편』의 간행과 이후 노론에 의해 파기되는 과정에 대한 사항은 양기정, 「『禮記類編』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연구」, 『서지학보』 38, 2011; 양기정, 「『禮記類編』의 毀板과 火書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 39, 2012; 정호훈, 「『焚書와 毀板』의 정치학: 최석정의 예기유편 편간과 政爭」, 『규장각』 61, 2022 참조.

9 이에 이봉규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최석정의 『대학』과 『중용』 이해는 대체적으로 주희의 설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혔다(이봉규, 「조선시대 禮記 연구의 한 특색: 朱子學的 經學」, 『한국문화』, 2009, 57쪽).

10 『大學章句』, “所謂致知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卽物而窮其理也”.

11 최석정의 문집에 「우주도」를 작성한 후 그 경위에 대해 이야기한 「우주도설(宇宙圖說)」이 존재하나, 도식 자체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12 16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소론계 학인 간 ‘격물’ 논변의 종류와 양상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이원준, 「소론계(少論系) 학인 간 격물(格物) 논변의 배경과 항방」, 『한국철학논집』 73, 2022, 91~92쪽 참조.

13 『明谷集』 卷13, 「與鄭士仰書(壬申)」, “夫天下之理一也, 苟理之所在, 則固未可以人而輕重. 然古人論學之旨, 莫要於大學, 而朱子訓義, 至明且備.”

14 『霞谷集』 卷2, 「答崔汝和書(癸酉或疑甲戌)」, “致良知之良字, 不過釋致字

석정이 정제두와 논변하는 과정에서 『대학장구』의 ‘즉물 궁리’를 논거로 양명학의 ‘치양지’를 비판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는 1690년경에 소론계 학인 사이에서 ‘격물’을 주제로 논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논변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이세구, 이세필과 논변을 진행하였다. 논변의 형식은 1689년경 최석정이 이세구에게 자신의 격물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세구가 이를 비판하고, 이후 이세필이 두 사람의 논변을 검토하면서 이세구의 비판에 동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¹⁵

최석정은 격물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사물의 이치로 하여금 이르게 하는 것”로 이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는 ‘격물’의 현토 또한 “物을 격게하다”가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러한 격물 이해는 종전 성리학계의 ‘격물’ 이해와 동일하지 않은데, 기존 학계에서는 ‘격물’을 ‘궁리(窮理)’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궁리’의 해석 방식인 ‘이치를 궁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내가 사물에 이르러 그것을 궁구한다’ 즉 “物을 격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⁷ 우선 그의 ‘격물’의 술어인 ‘격’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之爲良知，以別於致知識之知字而已，(只言致則兩義都無分別，故聊加一字以表其名)。不然致知二字盡之矣，何必別加一字，以爲添足之譏乎。今不察其不得已表出之意，乃曰孔門無此三字句。然則則窮理窮理之語，未知見於何經。孔孟之書既無見也，程門亦嘗疑之，此實願聞者也”。

15 다만, 최석정의 문집에서 이들 사이의 논변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최석정의 문집에는 논변 이후 박세체에게 두 사람과 논변이 있었음을 소략하게 알리는 내용만이 남아있다(『明谷集』卷12, 「書玄石格物訓義說後」). 최석정의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경학(經學)이나 예설(禮說) 같은 학문적 내용과 관련된 편지들은 별도로 분류하여 별집(別集)으로 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간행되지 못하여 결국 망실된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 내용을 별집으로 간행하려고 계획한 정황에 대해서는 『명곡집』 권 13 ‘서독(書讀)’의 목록에서 확인된다(『明谷集』卷13 目錄, 「書讀」“論經義及禮說諸書，彙分爲經說禮說，作別集”). 이에 본고에서는 부득이 이세구와 이세필, 박세체 등 소론계 문인들의 문집에서 최석정의 격물설을 추출하여 소개하였다.

16 『養窩集』冊5, 「答崔汝和(錫鼎)論格物別幅(己巳八月)」, “來教曰格物如格于上帝之格，言窮究事物之理而使之格也。句讀曰物乙格게하다.”

17 이원준, 「소론계(少論系) 학인 간 격물(格物) 논변의 배경과 향방」, 『한국철학논집』 73, 2022, 104쪽.

18 『양와집』에 수록된 최석정과 의 격물 관련 왕복서는 『養窩集』冊5에 「答崔汝和(錫鼎)論格物別幅(己巳八月)」, 「又答崔汝和論格物說(己巳十月)」, 「又答崔汝和論格物說(己巳)」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편지의 경우

‘격물’의 뜻은 옛 훈고로 구해본다면 단지 ‘끝까지 이르다[極至]’ 한 가지 뜻만 있으니, ‘격’자에 과연 ‘궁구하다(窮)’의 뜻이 있었다면 『대학장구』에는 반드시 ‘격은 궁구하다는 뜻이다[格, 窮也.]’라고 하거나 혹은 ‘궁구하다와 이르다의 뜻이다[格, 窮也 至也.]’라고 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격은 이름이다[格, 至也.]’¹⁹라고만 되어 있으니 ‘궁구함’의 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물은 본래 궁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르는 이치는 없으니 그 공부에 착수하는 것은 ‘궁구하여 이르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다.²⁰

위 글에서 최석정은 주희가 해석한 ‘격’자의 의미에 ‘궁구함’이 없고 단지 ‘이름[格, 至也]’만이 있으며, 이에 글자 풀이 이후에 등장하는 문장을 통해 격물 공부의 특성을 ‘궁구하여 이르도록 하는 것[窮而使之格]’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가 성리학적 격물궁리의 방법론이 ‘궁리’임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세구와의 논변 과정에서 최석정은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의 “‘격물’의 ‘격’자는 ‘궁구함’의 뜻이 많다.”²¹에 대해 “바로 그 공부를 가리켜 ‘궁리’를 주로 해서 말한 것이지 ‘궁’자가 해석이 된 것이라고 곧바로 지적한 것이 아님을 또한 볼 수 있다”²²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그가 ‘격’자의 사전적 해석과는 별개로 격물 공부의 방법론에 ‘궁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겼음을 보여준다.

최석정의 ‘격’자 이해는 『대학장구』의 ‘격물’의 자구 풀

몇 월에 발송하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긴 내용의 편지인 만큼 가장 마지막에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 본문 및 각주에는 각각 ‘養窩書」1’, ‘養窩書」2’, ‘養窩書」3’으로 표기하였다. 『구천유고』에 수록된 최석정 격물설 관련 편지는 『龜川遺稿』卷4, 「答崔汝和格物說」한 편이 있는데, 이세구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하 본문 및 각주에는 「龜川書」로 표기하였다.

19 『대학장구』경1장에서 주자가 ‘격물’의 ‘격’자와 ‘물’자를 풀이한 부분 “格, 至也. 物, 猶事也.”에서 “격은 이르는 것이다”와 관계된 부분이다.

20 『養窩書」3, “格物之義，以古訓求之，只有極至一義，格字果有窮究之義則章句必曰窮也，或曰窮也至也可矣。今但曰格至也，其無窮究之義可知也，然物無不窮而自到之理，其下工在於窮而使之格也云云”。

21 『栗谷全書』卷32, 「語錄下」, “格物之格，窮底意多，物格之格，至底意多”。

22 『養窩書」3, “又曰栗谷所謂格物之格，窮字意多，亦當活看，正指其工夫，以窮理爲主而言，非直指窮字爲訓者，亦可見矣”。

이에 해당하는 구문인 “格, 至也, 物, 猶事也”를 따른 것으로, 여기서 그의 주장이 주희의 격물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처럼 최석정의 격물에 대한 이해는 『대학장구』 경1장의 격물 주석인 “格, 至也, 物, 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어서 최석정은 자신이 ‘사지격’으로 ‘격물’을 보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장구(章句)』의) ‘극처무부도(極處無不到)’ 다섯 글자는 공효이나 ‘욕기(欲其)’ 두 글자는 오히려 공부의 측면에 있으니, 이를 가지고 격물의 장구에 구해 본다면 이른바 ‘궁지사물지리(窮至事物之理)’는 격물공부가 되고 격물의 바른 뜻이 아니게 된다. ‘欲’자는 ‘使’자에 해당되고 ‘욕기극처무부도(欲其極處無不到)’는 사물로 하여금 오게 한다는 뜻이 되어 실로 격물의 바른 뜻이 된다.²³

② (『대학』 팔조목의) ‘성의(誠意)의 誠’, ‘정심(正心)의 正’, ‘제가(齊家)의 齊’, ‘평천하(平天下)의 平’은 본시 ‘정(靜)’의 뜻이나 ‘동(動)’의 뜻으로 써도 장애가 없다. ‘격물의 格’자는 ‘至’로 해석을 삼았기에 ‘동’의 뜻을 지을 수 없으니, ‘치지(致知)의 致’자를 ‘정’의 뜻으로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미 ‘동’의 뜻으로 지을 수 없다면 오직 ‘사지격(使之格)’ 뜻이 있어야 비로소 공부에 속하게 된다.²⁴

③ ‘格’자가 고서에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이니, 『서경(書經)』에서는 “格于文祖”²⁵, “有苗格”²⁶, “格汝衆”²⁷이라 하였고

23 「養窩書」3, “極處無不到五字是功效, 而欲其二字, 猶在工夫地頭也, 以此求之於格物章句則所謂窮至事物之理者, 爲格物工夫而非格物之正義也, 欲字當使字而欲其極處無不到, 爲使物格之意而實爲格物之正義也”.

24 「龜川書」, “誠正齊平, 本是靜義, 而以動義用之無碍, 格字以至字爲訓, 不可作動義, 猶致字不可作靜義也, 既不可作動義, 則唯有使之格一義方屬工夫”.

25 「순전(舜典)」의 “정월 초하루에 순임금이 문조에 나아갔다[月正元日, 舜格于文祖]”의 마지막 네 글자를 인용한 것이다.

26 「대우모(大禹謨)」의 “순임금이 문덕을 크게 펴고, 방패와 깃털 들고 두 섬 돌에서 춤추니, 70일이 되어서 유묘족이 와서 복속하였다[帝乃誕敷文德, 舞干羽于兩階, 七旬有苗格]”의 마지막 세 글자를 인용한 것이다.

27 「반경(盤庚)」의 “모두들 이리 오너라. 내 너희들에게 훈계하노라[格汝衆,

『시경(詩經)』에서는 “神之格思”²⁸라고 하였으니, 모두 ‘이르다[至]’의 뜻이다. ‘格’자는 ‘假’자와 통하는데, 『주역』의 “王假有家”²⁹, “王假有廟”³⁰가 또한 이리하며, 『시경』에서 “奏假無言”³¹, “昭格無羸”³²이라고 하였으니, 이 두 구는 모두 ‘이르다[至]’의 뜻이다. “格神明” 같은 말은 “나의 정성을 다하여 신명으로 하여금 와서 강림토록 한다”는 뜻이 되며, “格多士而詔告” 같은 말은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왕의 조정에 와서 고하게 한다”는 뜻이 된다. 이 몇 단락을 보면 격물의 뜻은 두루 조망하여 통연히 분석할 수 있다.³³

최석정은 ①번 문장에서 『대학장구』의 글자풀이에 해당하는 “格, 至也, 物, 猶事也” 이후 주석인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는 모두 공부의 조목에 해당하며, 이에 ‘欲’자를 ‘하여금’의 뜻으로 보았다. 또한 ②번 문장에서는 다른 팔조목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동정’ 모두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치지(致知)’와 ‘격물’의 경우 ‘동정’을 모두 포함할 수 없으므로, ‘致知’의 ‘致’자에는 ‘정’의 뜻이 없어 그 공효를 ‘지(知)’로 표현한 것처럼 ‘격물’의 ‘格’ 역시 ‘동’의 뜻을 포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③번 문장에서는 옛 경서의 ‘格’자를 ‘이르게 하다’로 해석되는 여러 경서의 용례

予告汝訓”의 첫 세 글자를 인용한 것이다.

28 「대아(大雅)」〈억(抑)〉편의 “신이 이르심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射思]”를 인용한 것으로, 이 시구는 『중용』 16장에도 등장한다.

29 가인괘(家人卦) 구오(九五) 효사(爻辭)에 등장하는 “왕이 이르러 집안의 도를 세운다[王假有家]”를 인용한 것이다.

30 환괘(渙卦)와 취괘(萃卦)의 과사(卦辭)에 등장하는 “왕이 사당에 이른다[王假有廟]”를 인용한 것이다.

31 「상송(商頌)」, 〈열조(烈祖)〉편의 “연주하고 제물 올리는데 말이 없고 다투는 이 없도다[謦假無言, 時靡有爭]”에서 ‘謦’를 ‘奏’으로 고친 것이다.

32 「대아」, 〈운한(雲漢)〉편의 “대부와 군자들이 밝게 강림함에 남김이 없도다[大夫君子, 昭假無羸]”를 인용한 것으로, 원문에는 ‘格’이 ‘假’로 되어 있다.

33 「龜川書」, “蓋格字見於古書者有數處, 書曰格于文祖, 有苗格, 格汝衆, 詩曰神之格思, 皆至義也, 格通作假. 易曰王假有家, 王假有廟, 亦是也, 詩曰奏假無言, 昭格無羸, 此二句, 皆至之義也. 蓋如言格神明, 則盡吾之誠, 使神明來格也. 如言格多士而詔告, 則使多士來至于王庭而詔告也, 觀此數段則格物之義, 可以旁照而洞析矣”.

들은 인용하여 ‘격물’을 ‘특정한 대상을 시켜 다가오도록 하는 것’처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술한 모든 문장은 ‘사지격(使之格)’, 즉 ‘내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사물의 이치로 하여금 나에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격물 공부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사지격’ 독법에서 확인되는 최석정 격물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석정은 『대학장구』의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를 모두 격물공부로 보고 있다. 기존 성리학계에서는 ‘욕기(欲其)’ 두 글자를 기준으로 앞의 여섯 글자(窮至事物之理)를 격물의 공부인 ‘궁리’로, 뒤의 다섯 글자(極處無不到)를 격물의 공효, 즉 ‘물격(物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주희가 ‘물격’을 “사물의 이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³⁴ 이어서, 그는 ‘동정’ 가운데 ‘정’의 의미만 지닌 ‘격’자의 특성상 특정한 행위, 즉 ‘동’이라는 활동에 해당하는 공부의 뜻을 주희 격물 주석 전체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최석정이 인간의 공부법인 ‘궁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때 그가 ‘동’의 활동을 부여하려 한 대상은 ‘사물’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최석정 격물설의 마지막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격물 공부를 통해 ‘이르는[格]’ 주체를 ‘사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격물 공부’를 “격물 공부의 주체인 ‘나’가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던 기존 학계와는 달리, 최석정은 격물의 대상인 ‘사물’이 나의 궁리 공부를 통해 나에게 오는 것으로 설정하여 공부의 대상인 ‘사물’까지 격물공부의 주체가 된다고 본 것이다.

3. 최석정 ‘사지격’ 독법의 함의

: ‘인간의 공부’에서 ‘사물의 호응’으로

최석정의 ‘사지격’ 독법,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주장들은 이전 성리학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최석정의 독자적 경학관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이해 방식과는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최석정의 주장은 동료 소론계 학인들로부터 비판받았다. 우선 최석정의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 이해 방식에 대해 이세구는 “궁구하여 이르게 한다[窮而使之格]’는 것을 격물의 훈석으로 삼아 ‘窮而’를 『대학장구』의 ‘窮至事物之理’에 해당시키고, ‘使之格’을 『대학장구』의 ‘欲其極處無不到’에 해당시킨 것”이라고 파악하였다.³⁵ 그리고 ‘極處無不到’를 ‘물격’으로 이해하는 기존 학계의 시각에 기초하여 ‘極處無不到’는 공효로 봐야하며, “欲其極處無不到”는 격물 공부를 통해 물격의 공효를 바라는 뜻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³⁶ “欲其極處無不到”를 ‘물격’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세필 또한 지적하는 지점으로,³⁷ 두 학자는 공통적으로 최석정이 “欲其極處無不到”를 “窮至事物之理”와 연계되는 공부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을 문제삼는다.

‘격(格)’자를 ‘정(靜)’의 의미로 한정하는 것 또한 기존 학계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이기에 비판에 직면했다. 이세필은 최석정이 ‘使’를 덧붙인 이유가 ‘致知-知至’의 용례와 같다면 역으로 ‘格物-物格’에서 ‘격’자를 다른 글자를 고쳐 쓰지 않은 이유는 ‘格’자 역시 다른 팔조목의 서술처럼 ‘동정’을 모두 담고 있는 말이 됨을 증명한다고 반박하였다.³⁸ 이세구 또한 최석정이 말하는 ‘동’과 ‘정’이 ‘유력

34 『大學章句』, “物格者, 物理之極處無不到也, 知至者, 吾心之所知無不盡也”.

35 「養窩書」2, “兄之論格物語雖多般, 撮其要則不過以窮而使之格, 爲格物之訓, 而以窮而當大學章句窮至事物之理, 以使之格, 當欲其極處無不到, 而其根抵則在於以爲格字古訓有使之格之意也”.

36 「養窩書」3, “故不佞之看章句則曰格至也者, 言格字之正義也, 窮至事物之理者, 言格物之義而工夫在其中也, 欲其極處無不到者, 言欲其物格也”.

37 「龜川書」, “其曰極處無不到也者, 言物格之正訓也, 欲其極處無不到也者, 言格物而欲物格也. 見此章句, 字意句語之精當, 格物物格之區別, 井井不紊, 昭昭可尋, 不啻如衆曜之麗乎天, 寧有一毫之疑晦難明者耶”.

38 「龜川書」, “據其不改下他字, 如改致之例者而見之, 則格之互言於動靜, 亦

(有力)과 ‘무력(無力)’의 의미임을 지적한 후, 최석정이 ‘격’자를 무력한 것으로 보고 역지로 유력의 말을 붙이면서 사물에게 움직임의 힘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격물’에 사동형 의미를 붙이지 않은 『대학』의 원문이나 정이나 주희 등의 설과 동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다.³⁹ 특히 이세구의 비판은 최석정 격물설이 격물의 대상인 사물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최석정의 격물설은 격물 공부의 대상인 사물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세구와 이세필은 이 때문에 주희의 학설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른바 (『혹문』의) “궁구하여 그 극에 이른다[窮之而至其極]”는 것은 사람이 궁구하여 그 극에 이르는 것으로, 공부는 바로 ‘窮至’상에 있는데, 어찌 “궁구하여 사물에게 그 극에 이르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자의 말을 반복해 보건대 어찌 사물에게 시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⁴⁰

주자께서 하신 말씀인 “格文祖”, “自家格”, “到得郡廳上”에서 문의의 소재를 자세히 본다면 모두 사람이 격함을 가리키고 일찍이 사물이 격한다는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使’와 ‘케’는 합하께서 스스로 주장하신 것이지 본래 경문에 대한 『장구』의 뜻이 아니라란 걸 알 수 있습니다.⁴¹

이세구와 이세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최석정이 격물 공부의 대상인 ‘사물’이 나의 격물공부에 상응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최석정

이 격물 주석의 ‘극처무부도’까지를 공부로 여기는 원인이 ‘사물’을 ‘격물’ 공부의 주체로 상정하는 ‘사지격’ 해석에 있다고 보았다. 격물 공부에서 그 대상인 사물까지 동력을 얻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들의 비판은, 최석정의 격물설이 공부의 주체인 ‘인간의 활동’에 더하여 공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호응’ 또한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석정의 격물설이 ‘인간의 공부’와 ‘사물의 호응’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은 최석정 격물설의 요점을 정리한 이세구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형께서 격물을 논하신 말이 비록 많으나 그 요지를 취하면 ‘궁구하여 하여금 이르게 한다[窮而使之格]’는 것을 격물의 해석으로 삼아 ‘窮而’를 『대학장구』의 ‘窮至事物之理’에 해당시키고, ‘使之格’을 ‘欲其極處無不到’에 해당시킨 것에 불과하나, 그 근거는 ‘格’자의 옛 해석 가운데 ‘하여금 이르게 하다’는 뜻이 있다고 여기신 데에 있습니다.⁴²

이세구가 정리한 것처럼 ‘사지격’ 격물설의 요체는 격물 공부는 비록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공부를 통해 극처에 이르는 주체는 사물이 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격물’ 해석은 ‘격물’의 대상인 ‘사물의 이치’는 나의 공부 정도에 따라 그것이 저절로 지극해질 뿐이라는 일반적인 성리학적 해석과는 동떨어져 있다. ‘궁리’를 포괄하는 점에서 최석정의 격물설은 주자가 설정한 ‘즉물궁리’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사물의 호응’이 추가된 점에서 최석정의 격물설은 전통적인 성리학적 격물설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석정은 ‘격물’의 ‘격’자에는 사람이 이룬다는 뜻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학혹문(大學或問)』의) ‘궁구하여 그 극처에 이른다[窮之

與平治齊修一例, 可知也”.

39 「養窩書」3, “吾所謂有力無力。卽兄所謂動靜之義。若如來教以物格爲使物格之義。則物格與使物格之格字。俱爲物至之義而屬之物。皆爲工效而均爲無力。未見其爲動靜之殊也。唯使者爲有力而在工夫地頭。格物之得爲工夫者。只是有此使字之故也。”.

40 「養窩書」1, “所謂窮之而至其極。乃人窮之而至其極也。工夫正在窮至上矣。豈可曰窮之而使物至其極耶。反復朱子之言, 何嘗有使物之意耶”.

41 「龜川書」, “曰自家格, 曰到得郡廳上, 詳其文義所在, 皆指人之格, 未嘗有物之格之義。由是言之, 使字與케吐, 不過閣下自下之說, 本非經文章句之義, 可知也”.

42 「養窩書」2, “兄之論格物語雖多般, 撮其要則不過以窮而使之格, 爲格物之訓, 而以窮而當大學章句窮至事物之理, 以使之格, 當欲其極處無不到, 而其根抵則在於以爲格字古訓有使之格之意也”.

而至其極⁴³에는 비록 ‘하여금 이르게 한다’는 뜻은 없지만 ‘格物’의 ‘格’은 사람이 이룬다는 뜻으로 지어 볼 수 없으니, 그렇다면 ‘사지격(使之格)’ 한 뜻은 다시 달려나가는 뜻이 없다. 그렇다면 ‘그 극처에 이른다’는 말에 ‘하여금 이르게 한다[使之格]’의 뜻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⁴⁴

현토의 측면에서, 최석정의 ‘物을 격케한다’와 기존 성리학계의 ‘物을 격한다’에서 격물의 주체는 격물 공부를 하는 ‘나’가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격물 공부의 대상인 ‘물’에 대한 인식이 된다. ‘격물’을 ‘궁리’와 동일시하여 ‘인간의 공부’ 측면에만 주목한다면 그 대상인 사물이 나의 격물 공부에 따라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혹은 나의 즉물궁리에 따른 사물의 반응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사동형인 ‘케하다’의 해석이 더해지면 사물은 나의 격물에 따라 특정한 반응을 하는 대상이 된다. 즉, 나의 격물 공부에 따라 사물 또한 반응과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세필이 최석정의 격물설을 꽃의 개화에 비유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사물이 이르게 한다’는 것은 ‘꽃이 피게 한다’와 동일한 문법입니다. 꽃이 피게끔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꽃을 피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꽃이고, 사물이 이르게끔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입니다. 그러므로 합하게서는 “格物의 격에 사람이 이룬다는 의미는 없으니, 사람이 이룬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⁴⁵

이세필의 비유는 ‘인간의 공부’와 이에 대한 ‘사물의 호응’이 최석정 격물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라는 점을 쉽게 보여준다. 꽃의 주인이 아무리 꽃이 필 수 있도록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더라도 꽃이 여기에 호응하여 피지 않으면 주인의 노력은 허사가 된다. 이처럼, 격물 공부는 ‘나의 공부’ 뿐만 아니라 ‘대상의 호응’ 또한 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최석정은 기존 학계에서 ‘공효를 바람’ 정도로 이해되던 『대학장구』 격물 주석의 ‘欲其極處無不到’를 ‘窮至事物之理’, 즉 ‘궁리(窮理)’와 짝하는 격물 공부의 한 축으로 상정한 것이다.

정제두를 비롯한 일부 소론계 학인들이 주자 격물설에 문제를 삼았던 지점은 ‘나의 도덕실천과 무관한 사물의 탐구’에 있었고, 이에 격물 명제에 실천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⁴⁶ 반면, 최석정의 독자적 ‘격물’ 해석은 실천으로서의 격물공부로 이행하는 것과는 달리 ‘격물’이란 용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세구와 이세필 역시 격물 훈의의 측면에서 ‘격물’의 ‘격’자에는 ‘궁구함’의 뜻이 없다는 ‘격무궁의(格無窮義)’를 주장하여 학술용어로서의 ‘격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색하였다는 점이다.⁴⁷ 이는 최석정의 격물설을 둘러싸고 세 학자 사이에서 진행된 논변이 수신과 공부의 측면에서 격물의 실천 방법보다는 학술용어로서 ‘격물’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최석정 격물설의 문제의식이 기존 성리학과 달랐다는 점은 그의 스승인 남구만의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남구만은 스스로도 기존 학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격물설을 주장하였으나, 최석정의 ‘사지격’에 대해서는 글자 뜻을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하였다.⁴⁸ ‘격물’을 “인간이 힘써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남구만으로서는 제

43 『大學或問』, “格者極至之謂, 謂窮之而至其極也”.

44 『養窩書』3, “窮之而至其極, 雖無使之格之義, 格物之格, 不可作人至之義看, 則除非使之格一義, 更無走去處, 然則至其極, 非含得使之格之義而何”.

45 『龜川遺稿』卷4, 「答崔汝和格物說」, “使之物格, 與使之花開, 同一語法也, 使之花開者固人也, 而開者, 非人即花也, 使之物格者固人也, 而格者, 非人即物也, 故閣下說曰 格物之格, 無人至之義, 不可作人格之義看”.

46 이원준, 「조선 후기 격물(格物) 독법(讀法)의 다양화 경향을 통해 본 남당한원진(南塘韓元震)의 격물설」, 『한국사상사학』 74, 2023, 179~184쪽.

47 이원준, 「소론계 격물 訓義 논변의 맥락을 통해 본 박세채와 정제두의 격물설」, 『양명학』 67, 2022, 27~29쪽.

48 『藥泉集』卷32 「答崔汝和(壬申)」, “高明所示物을格거호매吐, 蓋以格字爲至字看, 而必欲使文義合於至字之義, 故其懸吐不得不如此, 而於愚見亦未知其恰當也”.

자의 주장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⁴⁹ 즉, 최석정의 관심사는 수신의 방편으로 ‘격물’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술용어로서의 ‘격물’을 성리학적 맥락에서 어떻게 정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있었던 것이다.

최석정은 ‘격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존 학계에서 강조한 ‘인간의 공부’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사물의 호응’ 또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학술용어로서의 ‘격물’을 정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의 학술활동이 산학과 음운학, 독자적 경학 등 일반적인 성리학 이론의 심화와는 결이 달랐던 점을 유념에 둔다면, 최석정의 격물설은 외부 사물을 인식하는 성리학적 ‘즉물궁리’의 방법론을 보완하는 새로운 유가적 인식론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최석정이 ‘즉물궁리’를 보완할 성리학적 인식론을 주장한 동인(動因)은 무엇이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궁리’와 ‘격물’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대상을 ‘궁리’하고 ‘격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확인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궁격’ 대상으로서의 ‘우주(宇宙)’ 이해

: 우(宇)·주(宙)의 분리와 ‘우설(宇說)’ 보완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석정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1704년에 「우주도(宇宙圖)」를 제작하였고, 이것이 자신의 ‘궁격(窮格)’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성리학을 포함한 동양철학에서 ‘우’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최대치의 개념이고 ‘주’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최대 개념으로 분

49 남구만은 ‘격물’의 ‘격’자를 “손으로 직접 맹수를 잡는다[手格猛獸]”에서의 ‘격’자와 같은 것으로, 이에 ‘격물’을 “직접 행하기를 힘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藥泉集』 卷32, 「答崔汝和(壬申)」, “妄意格字似與手格猛獸, 人莫敢格之格字同, 而與目擊之擊字義頗相類, 乃犯手之襪, 用力之猛也”).

류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주(宇宙)’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품는 최대 시공간을 통칭하는 관념으로 이해된다. 최석정의 ‘우주’ 관념은 이러한 전통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상하사방(上下四方)을 ‘우(宇)’라고 하고 ‘고금왕래(古今往來)’를 ‘주(宙)’라고 한다”⁵⁰고 하였고 또 “우주는 손에 있고 온갖 변화는 마음에서 나온다”⁵¹고 하였다. 추자(鄒子)⁵²의 비해와 구주의 설은 ‘우’에 대한 설이고, 소자(邵子; 邵雍)의 일원, 십이회의 설은 ‘주’의 설이다. 『한지(漢志)』에서 말하는 ‘무왕이 맹진에서 제후를 모은 해’⁵³는 역원(曆元)과 삼삼만여년 떨어져 있으며, 그 이후의 역가들이 거산(距算)⁵⁴한 말이 사람마다 다르니, 대저 모두 ‘주’에 대한 설이다. 근래 서양의 이마두(利瑪竇)의 지구도(地球圖)는 또한 ‘우’에 대한 설이다. 그러나 일찍이 생각을 깊이 하고 세심히 미루어 보면 기의 체는 지극히 크고 밖이 없고 항구하고 쉬지 않으니 어찌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개벽에 국한될 뿐이겠는가?⁵⁵

여기서 최석정은 ‘우’와 ‘주’의 범주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전통적인 지리지식인 비해구주(裨海九州)의 설과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 등 예수회 선교사들이 소개한 서양의 지리지식을 ‘우설(宇說)’

50 『淮南子』「齊俗」, “往來古今謂之宙, 四方上下謂之宇. 道在其間, 而莫知其所”.

51 『陰符經』, “宇宙在乎手, 萬化生乎心”.

52 중국 춘추전국시대 음양가인 추연(鄒衍)으로, 오행상승(五行相勝) 작용에 의하여 세상의 모든 사상(事象)이 생성된다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제창하였으며, 그의 학설은 한대(漢代) 참위학(織緯學)의 기초가 되었다.

53 『서경』「태서(泰誓)」에 “13년 봄에 맹진에서 크게 모였다[惟十有三年春大會于孟津]”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주벌할 때 8백의 제후가 집결한 것을 뜻한다.

54 역원으로부터 구하려는 해까지 경과한 해수를 뜻한다.

55 『明谷集』 卷11 「宇宙圖說」, “傳曰 上下四方謂之宇, 往來古今謂之宙. 又曰 宇宙在乎手, 萬化生乎心. 鄒子裨海九州, 卽宇說也, 邵子一元十二會, 卽宙說也. 漢志云武王會于孟津之歲, 距曆元十三萬餘歲, 其後曆家距算言, 人人異, 大抵皆宙說也. 近世西洋利瑪竇地球之圖, 卽亦宇說也. 然竊嘗潭思而細推之, 氣之體, 至大而無外, 恒久而不息, 夫豈局於一世界一開闢而已哉”.

로 통칭하였다. 또한, 소옹의 『황극경세서』에 등장하는 원회운세(元會運世)와 역대 역산가들의 역법(曆法)은 ‘주설(宙說)’로 분류하였다. 즉, 공간적 지리지식을 ‘우설’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천문역법을 ‘주설’로 본 것이다. ‘우설’에 서양의 지리지식이 포함된 것처럼 ‘주설’에 해당하는 역대 역산가들의 역법에는 서양의 역법 또한 포함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그가 관상감의 영수를 겸직하면서 시헌력을 도입한 관상감의 천문역학 연구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우/주’ 관념에는 당시 중국을 거쳐 조선에 유입되던 서양의 천문학과 지리학 또한 포함되었던 것이다.

서양에서 전래된 ‘우설’과 ‘주설’에 대한 최석정의 평가는 1708년 관상감에서 당시 임금이었다던 숙종에게 「건상도(乾象圖)」와 「곤여도(坤輿圖)」로 지어 바칠 때 남긴 글인 「서양건상곤여도이병총서(西洋乾象坤輿圖二屏總序)」에서 확인된다. 당시 관상감에서 모사한 「건상도」와 「곤여도」의 원본은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중국명 湯若望, 1591~1666)의 『적도남북양총성도(赤道南北兩總星圖)』와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였다.⁵⁶ 두 도식에 대한 최석정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리 관상감에는 예부터 천상분야도(天象分野圖) 석각본이 있는데, 북극을 중앙으로 하고 적도 이북의 전도(躔度)는 무차(無差)하나 적도 이남의 전도는 점차 좁아지다가 도리어 더 트이게 하여 상현의 본체와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사(西士)는 두 개의 권을 만들어 천체를 공평히 나누어 한 쪽에는 북극을 중심으로 하고 한쪽은 남극을 중심으로 하였고, 은하수에는 무수히 작은 별들을 세었으며, 28수 가운데 자(觜)-

삼(參)을 바꿔 놓았으니, 이는 석본과 같지 않은 것이지만 도리어 천상의 참된 면모를 얻은 것입니다. 「곤여도」의 경우 옛날과 지금의 지도가 같지 않습니다. 옛날의 지도는 모두 평면을 지방(地方)으로 삼고 중국의 성교(聲教)가 미치는 곳을 바깥 경계로 삼았는데, 지금 서사의 설은 땅이 둥글다는 설을 주로 삼으면서 “하늘이 둥그면 땅 또한 둥그니, 소위 ‘지방’이라는 것은 ‘곤(坤)’의 도가 정을 주로하여 그 덕이 방정하다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큰 원을 체로 삼으면서 남북으로는 가는 곡선을 더하고 동서로는 세로로 직선을 그었으며, 동근 땅의 상하사방에 나아가 만국의 명목을 분포시켰는데, 중국의 구주는 적도 북쪽 가까이 있는 ‘아세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설이 광활(宏闊)하고 교탄(矯誕)하여 근거가 없어 경전의 뜻에 맞지 않는 데로 넘어갔습니다.⁵⁷

우선 최석정은 서양의 천문지식에 대해 이전의 것보다 뛰어난 점을 간파하고 그 우수성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서양의 ‘주설’인 천문지식이 전통적인 ‘주설’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 것이다. 이는 『구수략』을 저술하면서 서양 서적을 참조하던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데, 역법을 계산하는데 수리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가 서양의 수학 지식을 참조한 것은 천문지식과 마찬가지로 수리 지식을 ‘주설’의 범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그는 「곤여도」에 대해 기존의 천원지방과 화이론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황된 주장이라고 비판하였다. 최석정이 지적한 대로, 『곤여만국전도』는 지구설(地球說)에 기초하여 제작된 세계지도로, 전통적 화이론적 세계관에서는 그림의

57 『明谷集』卷8 「西洋乾象坤輿圖二屏總序」, “蓋本監舊有天象分野圖石本, 而以北極爲中央, 赤道以北躔度無差, 赤道以南躔度, 宜漸窄而反加闊, 與上玄本體不侔. 今西士爲二圓圈, 平分天體, 一則以北極爲中, 一則以南極爲中, 以天漢爲無數小星, 列宿中觜參換置, 此與石本不同, 而却得天象之眞面矣. 坤輿圖則古今圖子非一揆, 而皆以平面爲地方, 以中國聲教所及爲外界, 今西士之說, 以地球爲主, 其言曰天圓地亦圓. 所謂地方者, 坤道主靜, 其德方云爾. 仍以一大圓圈爲體, 南北加細彎線, 東西爲橫直線, 就地球上下四方, 分布萬國名目, 中國九州, 在近北界亞細亞地面. 其說宏闊矯誕, 涉於無稽不經”.

56 최석정은 두 도식의 저자를 모두 아담 샬로 소개하였으나, 최석정이 모사한 것을 살펴볼 경우 「회입 곤여만국전도」와 조선 후기의 서구식 지도,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조선 후기의 세계관』, 경인문화사, 2013, 134~135쪽).

중앙에 위치해야 할 중원 대륙을 서북 방면에 위치한 아시아 대륙의 일개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이다.⁵⁸ 이에 최석정은 천원지방의 구도를 벗어난 것과 더불어 세상의 중심이어야 할 중원 대륙이 지도의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고 일개 지역으로 표시된 점에 거부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양의 ‘우설’을 비판하면서도 그 직후 “그 학술이 전수된 곳은 유래가 있어 경솔히 논할 수 없으니, 우선은 마땅히 보존하여서 이문(異聞)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⁵⁹ 라고 하여 이후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성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말단의 학문이자 ‘허황된 말’로 치부되는 ‘우설’과 ‘주설’에 대한 최석정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논하는 것은 평활(宏闊)하고 교탄(矯誕)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니, 순자께서 말씀하신 “쓸모 없는 논변이고 급하지 않은 살필거리”⁶⁰가 거의 이러한 유이다. 그러나 군자는 하나의 사물이라도 격물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그러한 즉 이는 ‘이기(理氣)’의 큰 근원이 되는 것으로 어찌 한번에 허비해 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함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⁶¹

최석정은 유학에서 중요시하지 않던 잡학일지라도 ‘우/주’를 탐구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 또한 그 모든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격물’ 공부의 일종이라고 여겼다. 이에 그는 유가적 자연철학의 기초를 이루는

58 화이관에 기초한 전통 지도 제작은 화-이의 위계질서를 표출하는 이념적 도구였으며, 이에 마테오 리치는 화이관적 세계 밖에 있으면서도 중화 못지 않은 문명인 기독교 문명의 존재를 강렬한 시각적 정보로 전달하기 위해 천문지식과 더불어 지리지식 또한 전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일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세계 지도에 ‘지적 충격’을 받고 중화 중심주의를 이탈한 동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김선희, 「조선 후기 지적 승인의 이념과 그 변용: 예수회의 세계 지도와 지리학 도입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7, 2019, 310~313쪽).

59 『明谷集』卷8 「西洋乾坤輿圖二屏總序」, “然其學術傳授有自, 有不可率爾卜破者, 姑當存之, 以廣異聞”.

60 『荀子』 「天論」, “無用之辨, 不急之察, 棄而不治”.

61 『明谷集』卷11 「宇宙圖說」, “凡此所論, 涉於宏闊矯誕, 荀子所謂無用之辨, 不急之察, 殆此類也. 然君子恥一物之不格, 則此是理氣大源處, 何可一向擔閣而任其不知乎”.

‘역’의 원리로 ‘우/주’를 충분히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⁶² 즉, 최석정에게 있어 ‘우설’과 ‘주설’ 모두 격물 공부의 대상으로 나의 공부에 따라 그 이치가 자신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서양의 ‘우설’과 ‘주설’ 모두 궁리 공부에 호응하여 자신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석정에게 있어 서양의 ‘주설’은 궁리공부를 통해 이르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동양에서 천문학이나 수학이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갱신된 역사가 있는 데다가 서양 지식의 도입을 통해 과거보다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곤여만국전도』에 수록된 각종 지리지식은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치 바깥에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최석정은 이것을 아무리 ‘궁리’해도 이것으로 하여금 이르게 할 수 없는 지식들이 되었으며, 이에 최석정은 서양의 ‘우설’을 수용하는 데 유보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은 ‘리’와 ‘기’로 이루어졌다는 성리학적 우주생성론에 비추어보면, 이것 또한 나의 궁리에 호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이는 ‘주설’에 비해 이론적 기반이 빈약한 전통적 ‘우설’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는 그의 우주관으로 이어진다.

장자(莊子)가 이르길 “육합(六合) 밖의 일은 성인은 그냥 두고 논하지 않는다”⁶³고 하였고 소옹께서는 “어떤 사람이 혹은 나에게 고하길 ‘천지 밖에 별도로 천지만물이 있으니 이 천지 만물과는 다르다’고 하니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⁶⁴라고 하였으며, 주자(周子; 周敦頤)께서는 “혼과 벽의 관계 속에서 무궁하게 변화가 이어진다”⁶⁵고 하였으며, 주자께서는 시에 “앞

62 『明谷集』卷11 「宇宙圖說」, “易大傳曰 夫易廣矣大矣, 以言乎遠則不禦, 又曰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觀乎此, 則宇宙之說, 可得而言矣”.

63 『莊子』 「齊物論」, “六合之外, 聖人存而不論, 六合之內, 聖人論而不議”.

64 『皇極經世書』 「觀物篇」, 52, “人或告我曰天地之外, 別有天地萬物, 異乎此天地萬物, 則吾不得而知之也”.

65 『通書』 「動靜」, “混兮闔兮, 其無窮兮”.

으로 보아도 시작이 없는데, 뒤인들 어찌 끝이 있으랴.”⁶⁶라고 하셨다. 장자와 소자 두 선생이 논한 것은 ‘우’에 대한 설이 함축되어 있으나 그 뜻은 볼 수 있으며, 럽계와 주자 두 현인의 논의는 ‘주’에 대한 설이 분명하고 밝기만 할 뿐이 아니니, 중횡(從衡)이 똑같이 하나의 기요, 오래되고 큼이 똑같이 하나의 리이니, ‘주’가 이미 이와 같은데 ‘우’가 어찌 홀로 다를 수 있겠는가?⁶⁷

최석정이 선대 학자들의 설을 인용한 데에서 확인되듯, 성리학적 ‘주설’은 성리학적 이기론의 틀을 마련한 주돈이와 주희가 이미 그 확장 가능성을 긍정한 바 있다. 이렇듯 성리학적 ‘주설’의 경우 그 확장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수학적 지식을 충분히 축적한 최석정으로서 서양의 ‘주설’ 역시 전통적 ‘주설’과 같은 범주에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그가 서양의 천문역법과 산학을 받아들인 까닭은 그의 사상적 개방성과 더불어 서양의 ‘주설’이 성리학적 본체론인 ‘이기론’의 구도 하에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것이었던 덕분도 있었다.

반면, 최석정이 바라본 성리학적 ‘우설’은 ‘리’와 ‘기’의 본체론 구도 하에서 무한한 확장을 이루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주설’에 비해 부족하였다. 최석정은 ‘우설’과 관련된 유학자의 논의를 ‘기(氣)’적 논의에 집중한 소용의 것만 인용하였고, 심지어는 송대 유학자조차 아닌 도가사상가 장자의 설을 인용하여 전통적 ‘우설’은 ‘육합 밖의 일을 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문제는 최석정에게 있어 『곤여만국전도』에서 확인되는 온갖 지리정보와 물산들은 기존의 성리학적 ‘우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범주의 바깥에 있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주설’의 범주에서는 서양의 학문 자산을 받아들인 최석정일지라도

‘우설’의 범주에 속하는 서양의 학문 자산을 자기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최석정은 성리학적 ‘우설’의 한계를 체감한 것이다.

성리학적 ‘우설’의 이론적 빈약함에 대한 최석정의 고민은 그가 「우주도」를 저술한 1704년경에 지은 세 수의 시 〈우주음(宇宙吟)〉, 〈홍몽음(鴻濛吟)〉, 〈중횡음(縱橫吟)〉에서 엿볼 수 있다.⁶⁸ 특히 〈홍몽음〉은 주희가 지은 「재거감흥(齋居感興)」 20수의 두 번째 시구에 영감을 받아 지은 것으로, 그는 주희의 시를 ‘주설’로 평가하고 이를 본받아 ‘우설’의 시를 지었다고 밝혔다.⁶⁹ 최석정이 주희의 ‘주설’에 상응하여 지은 성리학적 ‘우설’에 대한 감상은 다음과 같다.

천지의 원기를 내가 보았더니 구해(九天)의 바깥에서 이리
저리 움직이네.

높고 깊음에 시작이 없는데 넓고 먼들 어찌 끝이 있겠나.

지극한이치여기에 존재하니 온공간(萬宇)이 세계와 같네.

일찍이 듣건대 우물안 개구리 놀랐다 하니 좁은 식견 막힌
곳 많구나.⁷⁰

위 시에서 최석정은 광대한 ‘우설’의 존재를 깨달은 것에 대해 ‘우물안 개구리가 놀란 것’으로 서술하여 기존의 세계관이 넓지 않음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합벽의 원리로 전통적 ‘주설’이 그 무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것이 ‘리’로써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적 ‘우’의 공간을 넘어 존재하는 존재들 역시 그 속에 ‘리’가 있을 것이라 보았다. 즉, 최석정은 기존의 세계관 바깥에 있을지라도 그 사물 속에는 역시 ‘리’가 내

66 『晦庵集』卷4「齋居感興二十首」第二首, “前瞻既無始, 後際那有終”.

67 『明谷集』卷11「宇宙圖說」, “莊子曰 六合之外, 聖人存而不論, 邵子曰 人或告我曰天地之外, 別有天地萬物, 異乎此天地萬物, 則吾不得而知之. 周子曰 混兮闢兮, 其無窮兮. 朱子詩曰 前瞻既無始, 後際那有終. 莊邵二子之論, 宇說得含蓄而意則可見, 濂朱兩賢之論, 宙說得不翅分曉, 蓋從衡同一氣也, 久大同一理也, 宙既如此, 宇何獨殊”.

68 세 수의 시는 『명곡집』 내에 1704년경에 지은 시들을 모은 「한고록(漢臯錄)」에 수록되어 있다.

69 『明谷集』卷6「詩○漢臯錄(甲申春, 移棲于紫霞洞, 又移漢南盤浦)」〈鴻濛吟〉, “朱子感興詩一篇曰……此宙說也. 錫鼎謹效作宇說”.

70 『明谷集』卷6「詩○漢臯錄(甲申春, 移棲于紫霞洞, 又移漢南盤浦)」〈鴻濛吟〉, “我觀鴻濛氣, 推濶九垓外. 高深既無限, 廣遠那有際. 至理諒斯存, 萬宇同此界. 曾聞井蛙驚, 楮兒多局滯”.

재되어 있을 것이며, 이에 이들 역시 궁리 공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는 「우주도설」을 통해 허다한 ‘우’에 존재하는 만사 만물의 다름을 ‘리’로서 일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궁격’의 공부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가령 ‘우’에 허다한 세계가 있고 ‘주’에 허다한 개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과 사물의 형색과 명목은 필시 모두 같지 못할 것이고, 세계의 명암과 치란도 또한 정해진 법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양오행의 운화와 삼강오륜의 윤리는 필시 보편적이고 있지 않은 적이 없어 한없이 이어져 바꿀 수 없으니, 비록 발이나 눈이 닿지 못하더라도 ‘리’로써 미룰 수 있을 뿐이다. 이제 문득 망령되어 ‘도’를 지어 궁격(窮格)의 한 단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⁷¹

서양의 천문지식과 지리지식의 유입은 최석정이 대개 하나의 범주로 여겨지던 ‘우주’를 지리를 통해 확인되는 공간적 이해 대상인 ‘우’와 천체의 흐름을 통해 확인되는 시간의 변화와 그 운행 원리를 표출하는 수리인 ‘주’로 나눈 동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때 천원지방과 화이론의 세계관을 지녔던 최석정은 서양의 ‘우설’인 지리지식에 대한 유보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주설’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는 동시에 서양의 ‘우설’을 접하면서 ‘우설’에 대한 성리학의 이론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최석정은 일종의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를 「우주도설」과 〈홍몽음〉을 통해 ‘주설’에 버금가는 성리학적 ‘우설’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는 ‘육합 바깥의 사물’ 역시 나의 궁리에 호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주설’의 확장성에 버금가는 ‘우설’의 확장을 시도한 것이다.

5. 나가며

최석정의 독자적 ‘격물’ 해석은 수신 방법론으로서의 격물을 이해하려 했던 기존 학계의 이해와는 달리 학술용어로서 ‘격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었다. 그 결과 그는 ‘인간의 공부’의 측면으로만 이해되던 격물공부에 공부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호응’의 측면을 추가하여 양자의 조응을 추구하였다. 학술용어로서의 ‘격물’에 대한 사색은 동시에 유학적 학문관에 대한 최석정의 고뇌를 보여주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적 ‘우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서양의 ‘우설’을 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최석정의 격물설은 그의 독자적 경서 해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리학적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바깥 사물’을 성리학적 세계관과 인식 이론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최석정은 서양 학문의 전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최전선에서 받은 지식인으로서 ‘격물’과 관련하여 기존 학계와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학적 학문관에 대한 최석정의 고뇌는 전통적 ‘우주’ 관념에 대한 사색으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최석정은 기존의 성리학적 자연관으로는 공간적 지식, 외물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우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음을 체감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석정은 만물의 이치이자 인간 도덕성의 근원인 성리학의 근본 개념인 ‘리’가 범람하듯 유입되는 ‘육합 바깥의 사물’과 호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최석정의 ‘우설’ 보완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물질세계 바깥에서 밀려들어오는 ‘바깥 사물’을 성리학적 세계관, 즉 ‘이일분수’의 우주론에 맞물리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이는 그가 ‘인간의 공부’가 아닌 ‘사물의 호응’으로 ‘격물’을 이해하고자 했던 한 동인이기도 하였다. 기존의 성리학적 격물설에서는 내가 격물하면 그 사물은 저절로 ‘이일분수’의 틀에서 이해되는 것이 되어야 했지만, ‘육합 바깥의 사물’은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성리학

71 『明谷集』卷11「宇宙圖說」, “假設宇有許多世界, 宙有許多開闢, 其間人物之形色名目, 未必盡同, 世界之明闇理亂, 亦無定準, 而其陰陽五行之運化, 三綱五常之倫理, 則必普遍而無不在, 綿亘而不可易, 雖非足目所到, 只可以理而推之耳. 今輒妄爲圖子, 以資窮格之一端云”.

적 세계관에 포함되지 않는 사물일지라도 그 속에 ‘리’가 있다면 그 사물은 나의 격물공부로 인해 ‘이일분수’의 기초 하에서 ‘분수지리’를 체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석정이 제시한 ‘물을 격하게 하는 격물공부’는 동료 학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구에 얽매인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지적 충격을 목격한 성리학자로서의 고뇌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최석정의 ‘사지격’은 성리학 적 ‘즉물공리’에 ‘사물의 호응’을 보완함으로써 기존의 세계관 바깥의 지식을 기존의 세계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

최석정은 당초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되는 성리학 적 격물 공부를 기존의 화이관적 세계관 바깥에서 유입된 각종 물산과 지식들을 성리학 적 시야에서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가 서구 학문이라는 ‘육합 바깥의 것들’을 접하면서 보여준 학술적 고뇌는 이전까지 경험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세계관 바깥의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고민케 한다. 조선 후기 서학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세계관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던 ‘성리학 이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범람하듯 유입된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 등 ‘기존의 과학적, 학문적 지평이 구축한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치 바깥의 것들’이 과연 기존의 학문적 지평을 통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탐색함에 있어, 이치 바깥에 있으니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최대한 이치 안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금이라도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최석정의 ‘우설’과 ‘사지격’은 이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석정을 비롯한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사유가 실제로 ‘이치 바깥의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유의미한 사유의 틀을 제시해 주고 있

는가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詩經』, 『書經』, 『周易』, 『荀子』, 『莊子』, 『淮南子』, 『陰符經』, 『通書』, 『皇極經世書』, 『晦庵集』, 『大學章句』, 『栗谷全書』, 『藥泉集』, 『明谷集』, 『養高集』, 『龜川遺稿』

2. 단행본 및 논문

실학박물관 편,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와 조선 후기의 세계관』, 경인문화사, 2013.

신병주 외, 『명국 최석정의 정치사상과 학문세계』, 한산문화연구원, 2021.

윤재환 외, 『명국 최석정 문헌세계에 대한 접근의 일단』, 학자원, 2020.

구만옥, 『朝鮮後期朱子學의 宇宙論의 變動』,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전병훈, 『조선 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선희, 『조선 후기 지적 승인의 이념과 그 변용: 예수회의 세계 지도와 지리학 도입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7, 한국유교학회, 2019.

송홍업, 『오일러를 앞선 최석정의 오일러방진』, 『한국통신학회지』 30(10), 한국통신학회, 2013.

양기정, 『禮記類編의 編纂과 刊行에 대한 연구』, 『서지학보』 38, 한국서지학회, 2011.

_____, 『禮記類編의 跋板과 火書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 39, 한국고전번역원, 2012.

이봉규, 『조선시대 禮記 연구의 한 특색: 朱子學의 經學』, 『한국문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이원준, 『소론계(少論系) 학인 간 격물(格物) 논변의 배경과 향방』, 『한국철학논집』 73, 한국철학사연구회, 2022.

_____, 『소론계 격물 訓義 논변의 맥락을 통해 본 박세채와 정제두의 격물설』,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2022.

_____, 『조선 후기 격물(格物) 독법(讀法)의 다양화 경향을 통해 본 남당 한원진(南塘韓元震)의 격물설』, 『한국사상사학』 74, 한국사상사학회, 2023.

정해남, 『소강절의 수문 사상과 <구수략>에 미친 영향』, 『한국수학사학회지』 23(4), 한국수학사학회, 2010.

정호훈, 『焚書와 跋板의 정치학: 최석정의 예기유편 편간과 政爭』, 『규장각』 6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2.

조희영, 『구수략(九數略)』, 송대 도서상수학으로 짜인 조선수학서: 인문학적 지평에서』, 『정신문화연구』 4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Abstract

Myunggok Choi Seokjeong's View on the Investigation of Things and Universe

Intellectual Challenge to Neo-Confucianism
in the Late Joseon and Its Response

Lee, Won-Jun |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view on *Gyeokmul*(格物) and *Woojoo*-universe(宇宙) of Choi Seokjeong(1646-1715).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examines the intellectual challenges faced by the Neo-Confucian scholars of the late Joseon period due to the emergence of new academic trends after the 17th century, as well as the ways in which these Neo-Confucian intellectuals responded to these challenges.

Choi focused on scholarly activities related to astronomy, mathematics, and Western Learning, which were considered "challenging trends against mainstream Neo-Confucianism". However, his ultimate goal was to secure the practicality of Neo-Confucianism. In fact, his academic methodology, like that of other Neo-Confucian scholars, was based on *Jeukmul Gungli*(即物窮理), to understand all things in the world. However, he understood *Gyeokmul* as "inquiring into the principles of things and enabling those things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This interpretation aimed to seek a correspondence between human study and the response of the studied "objects" by adding the aspect of the "object's respons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ewu* as purely "human study." His view of *Gyeokmul* aimed to transform the traditional *Gyeokmul* methodology, traditionally understood as recognizing human morality, into a method of understanding "things" beyond the Sino-barbarian worldview from a Neo-Confucian perspective.

Keywords Choi Seokjeong, Soron, Gewu, Cosmology, Neo-Confucianism, Korean Confucianism, The Eastward Transmission of Western Learning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